

배포일시	2021. 7. 12.(월) 14:00 (총 5매)	보도시점	2021. 7. 13.(화) 10:00
담당부서	기후과학국 기후변화감시과	담당자	과장 김정식 사무관 이진아
		전화번호	02-2181-0641 02-2181-0643

## 제2회 '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' 수상작 발표

- 대상에는 신지민 씨의 소설 <2100: 산호가 모두 죽었다> 선정
-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의미를 담은 글·그림·영상 총 13점의 입상작 발표

- 기상청(청장 박광석)은 7월 13일(수), '제2회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' 수상작 13점을 선정하여, 기상청 누리집([www.kma.go.kr](http://www.kma.go.kr))과 공모전 누리집([www.climate-science.info](http://www.climate-science.info))을 통해 발표했다.
- 이번 공모전은 △스토리부문 189점 △디자인부문 137점 △미디어부문 44점 등 △총 370점의 작품이 접수되었다.
  - 특히, 이번 공모전은 입상 후보작에 대해서 국민투표와 표절제보를 함께 진행해, 공정성과 국민 참여 기회를 높였다.
  - 최종순위는 심사위원 점수(80%)와 국민투표 결과(20%)를 합산해 △대상(1점) △최우수상(3점) △우수상(3점) △장려상(6점)을 결정하였다.
- 대상(환경부장관상)에는 지구온난화 1.5℃ 초과에 따른 2100년 전후에 나타날 상황을 소설로 그린 <2100: 산호가 모두 죽었다>(신지민)가 선정되었다.
  - 수상작은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했을 때, 맞게 되는 현실을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실감 나게 표현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.

-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▲스토리부문(시) 〈맹세해요, 우리 다함께 1도(1℃)만!〉 (김서영) ▲디자인부문(포스터) 〈1.5℃ 이상의 상승〉(김호) ▲미디어부문 (영상) 〈이제는 우리의 문제야!〉(손성민)가 수상했다.

- 이번 수상작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개최되며, 오프라인으로는 국립기상과학관을 비롯한 전국\*에서 다양하게 전시될 예정이다.

\* 국립기상과학관(5소, 대구/정읍/밀양/충주) 및 지방기상청·기상지청 홍보관 등

- 또한, 부문별 특성에 맞게 수상작을 활용한 △도서 △전자책 △포스터 △홍보물품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·배포될 예정이다.

- 박광석 기상청장은 “지구온난화 1.5℃의 과학적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하여 기후위기에 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.”라며, “이번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,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.”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제2회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 수상작 선정 결과

- 2. 제2회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 수상작 주요 작품

구 분	수량	상 훈	상 금	성 명	작품명
대상	1점	환경부장관상	200만 원	신지민	(소설) 2100: 산호가 모두 죽었다.
최우수상	3점	기상청장상	각 100만 원	김서영	(시) 맹세해요, 우리 다함께 1도(1°C)만!
				김 호	(포스터) 1.5°C 이상의 상승
				손성민	(영상) 이제는 우리의 문제야!
우수상	3점		각 20만 원	남경아	(소설) 오늘은 고기 먹는 날입니다.
				김수한	(포스터) 북극곰은 물 위를 걷지 못해요!
				김효진 등 2명	(영상) 베토벤의 운명으로 꿈꾼 기후변화
장려상	6점	각 10만 원	강증석	(수필) 성냥팔이 소녀의 0.5도	
			배현서	(수필) 태양을 바라보고 서면 우리의 뒤에는 그림자가 생긴다.	
			이찬규 등 2명	(포스터) 우리, 이제 어디로 가?	
			최인환	(포스터) 변(變)	
			오상우	(영상) 2°C는 1.5°C의 10배?	
			목지연 등 2명	(영상) 우리를 지키는 일정온도 1.5°C	
계	총 13점				



